
 금융위원회	<h1>보도참고자료</h1>			 금융감독원
	보도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	2016.10.19(수)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02-2100-2660)	답 당 자	박 보 라 사무관 (02-2100-2668)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 오 용 석(02-3145-6700)		김 진 옥 부국장 (02-3145-6702)	
	금융투자협회 WM본부장 성 인 모(02-2003-9240)		서 동 수 대리 (02-2003-9245)	

## 제 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금액 3조원 돌파

- ISA 출시 약 7개월 만에 가입금액 3조원 돌파
- ISA 가입금액, 평균가입금액의 뚜렷한 증가세를 감안시,  
적립식 투자 등을 통한 투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출시 7개월 시점인 10.14일 기준(6월말 대비),
- |          |                               |
|----------|-------------------------------|
| ① 가입계좌수  | : 240.4만좌( +3.6만좌, ↑ 1.5%)    |
| ② 가입금액   | : 30,252억원(+5,626억원, ↑ 22.8%) |
| ③ 평균가입금액 | : 126만원( +22만원, ↑ 21.2%)      |

## 1. ISA 가입 현황

- ISA 상품 출시(3.14) 후 약 7개월 경과한 10.14일 현재 ISA 계좌수는 240만 4천좌, 총 가입금액은 3조 252억원으로 3조원 돌파
- 6월말(출시후 약 3.5개월) 대비 현재, 가입자는 1.5% 증가한 반면, 가입금액은 22.8% 증가하여 적립식 투자, 여유자금 추가 납입 등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총 가입계좌수 : (6월말, 16주차) 236.8만좌 → (10.14일, 31주차) 240.4만좌, +1.5%  
총 가입금액 : (6월말, 16주차) 24,626억원 → (10.14일, 31주차) 30,252억원,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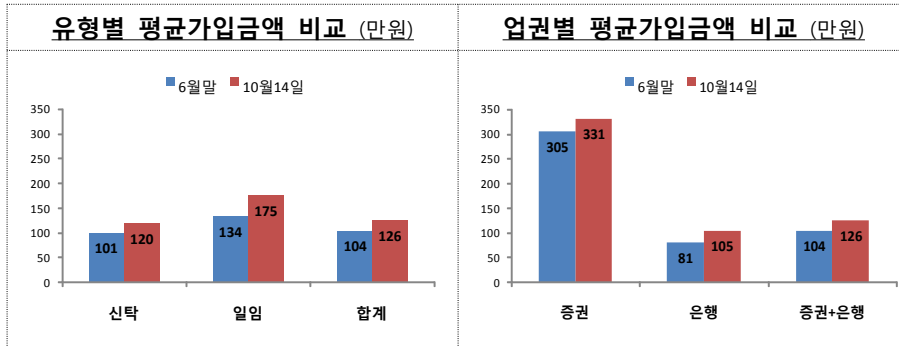
- 업권별 계약수는 은행이 217만 9천좌(90.7%), 증권사가 22만 4천좌(9.3%)로, 폭넓은 영업망을 가진 은행의 비중이 높은 상황 지속
  - 다만, 추가입금액은 은행이 2조 2,815억원(75.4%), 증권사 7,413억원(24.5%)으로 평균가입금액은 증권(331만원)이 은행(105만원)보다 높은 상황
- 유형별로는 신탁형(2조 5,537억원, 84.4%) 투자 비중이 일임형(4,715억원, 15.6%)보다 높음

**< ISA 가입현황>** (31주차, 10.14 기준)

업권	신탁형		일임형		합 계	
	가입자수	금액(억원)	가입자수	금액(억원)	가입자수	금액(억원)
은행	1,950,811	18,461	228,029	4,354	2,178,840	22,815
(비중)	91.4	72.3	84.5	92.3	90.7	75.4
증권	181,864	7,052	41,780	361	223,644	7,413
(비중)	8.5	27.6	15.5	7.7	9.3	24.5
보험	1,027	24	(미취급)		1,027	24
(비중)	0.0	0.1			0.0	0.1
합계	2,133,702	25,537	269,809	4,715	2,403,511	30,252

## 2. 추세 분석

- **(주간 가입금액) ISA 판매실적이 KPI에서 제외된 6월말 이후(17주차~)에도 주간 가입금액이 약 550억원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는 상황**
  - \* 가입금액 평균(억원) : (17~20주) 556 → (21~24주) 581 → (25~28주) 513 → (29~31주) 573
- **(누적 평균가입금액) 6월말 대비 10.14일 현재, 누적 평균가입금액도 약 104만원 → 126만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 누적 평균가입금액(만원) : (1주末) 49 → (16주末) 104 → (24주末) 115 → (28주末) 121 → (31주末) 126
- **유형별(신탁, 일임), 업권별(은행, 증권) 평균가입금액이 모두 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각각 일임, 은행이 높게 나타남**
  - \* (유형별) 일임 ↑28.3%, 신탁 ↑17.8% (업권별) 은행 ↑27.2%, 증권 ↑8.2%



□ **(가입 유형)** 신탁형 ISA 가입자(88.8%)가 일임형 ISA 가입자(11.2%)보다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 신규 가입자가 신탁형 ISA를 선택하는 비율은 도입 초기보다 낮은 약 60% 수준\*에서 안정화 추세

\* 신규가입계좌 중 신탁형 비중(%) : (1~8주) 93.7 → (9~16주) 78.8 → (17~24주) 69.2  
→ (25~31주) 60.2

### 3. 향후 계획

□ 일임형 ISA 수익률(9.30일 기준) 공시 : **10월말 예정**

※ 8.31일 기준 일임형 ISA 수익률 현황(10.6일 공시完)

- 총 181개 MP의 3개월(5.31~8.31) 평균수익률은 **1.31% 수준**(연환산 5.24%)으로, 이전 공시(7.11일 기준)보다 수익률(0.77%)이 **0.54%p, 1.7배 상승**
- MP별 수익률은 **최고 5.98%에서 최저 △0.44%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위험도가 낮을수록 평균 수익률이 낮게 나타남
  - \* (초고위험) 1.84% → (고위험) 1.81% → (중위험) 1.14% → (저위험) 0.95% → (초저위험) 0.55%
- 업권별 평균수익률은 **증권이 1.40%**(누적 2.16%), **은행이 1.11%**(누적 1.20%)